2011년 종교별 10대 뉴스

* 자료정리/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목차

1. 불교

1. 불교신문선정/ 2012년 새해 12대뉴스
2. 현대불교/ 2011년 올해 불교10대뉴스

II. 개신교

1. 교회연합신문/ 2011년 갈등과 반목의 한해
2. 크리스찬투데이/ 한국교회언론회의 기독교계 10대 뉴스

III. 가톨릭

1. 가톨릭신문선정/2011년 세계교회 10대뉴스
2. 가톨릭 신문선정/ 2011년 한국교회 10대뉴스

IV.유교/ 원불교

1. 유교신문 선정/ 2011년도 10대뉴스
2. 원불교신문 선정/ 2011년 10대뉴스

Ⅰ. 불교

[1] 불교신문 선정/ 2012년 새해 12대 뉴스

1. 종단중심 '자성과 쇄신 결사' 천명

불기2555년 불자들에게 제시된 가장 크고 무거운 화두는 '결사(結社)'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를 천명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가 되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불교로 거듭나겠다는 서원이다. 특히 종단 집행부만이 아닌 사부대중 모두의 합심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수행 나눔 문화 생명 평화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부처님 말씀에 걸맞은 결사의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발표 이후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동참 의사를 표명하고 원로 스님들은 격려의 덕담을 전하면서 결사는 순조롭게 닻을 올렸다.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은 사회 각계 명사로부터 매월 특강을 들으며 결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발심을 다졌다. 하반기 결사추진본부가 출범하면서 결사의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결사추진본부는 5대 결사 전담조직으로, 오랫동안 재야 시민사회에서 신망을 쌓은 도법스님이 본부장을 맡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결사추진본부는 결사의 내용에 앞서 결사의 과정에도 충실을 기했다. 결사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대중공사를 수시로 열며 사부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참여를 호소했다. 원활한 소통과 연대로 '부처님의 정법 실현에 뜻을 같이 하는 사부대중의 결집'이란 결사 본연의 의미에 충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은 결사추진본부의 첫 번째 성과물이었다. 종교차별의 최대 피해자인 불교가 외려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분노와 갈등의 세태를 치유한다는 취지였다. 초안 발표만으로도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좀 더 내용을 검토하라는 법전 종정예하의 당부에 따라 최종안 발표는 연기됐다. 그러나 진정한 정법(正法)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아울러 '종교평화선언'으로 구체화한 평화결사를 비롯해 수행 나눔 문화 생명 등 5대 결사 전체의 본령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이웃종교의 모방이 아니라, 불교만의 길을 닦고 꿋꿋이 걸어가라는 제언이다. 내년이 더욱 기대되는 결사다.

2. 제13대 종정 진제 대종사 추대

불기2555년 12월14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3대 종정에 진제 법원 대종사가 추대됐다. 종정추대위원회(원로의원,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는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추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종정에 진제법원(眞際法遠) 대종사를 단독 추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종정은 조계종의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종단의 정신적 지도자다. 자격은 승납 45년 이상, 세납 65세 이상의 대종사 법계를 받은 수행과 법력이 높은 비구스님으로 하고 있다. 종정예하는 종단의 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종단 행정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종단의 주요 행사와 안거 등을 맞아 종도들에게 법어를 내리며 종단의 모든 스님들에게 계를 전하는 전계대화상의 위촉권을 가진다. 또한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의 권한도 있다. 1700여년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조계종은 현대에 들어 비로소 종단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종정을 모셔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통합종단이 출범한 1962년 제1대 종정으로 효봉 대종사를 모셨다. 그후 청담(2대), 고암(3~4대), 서옹(5대), 성철(6~7대), 서암(8~9대), 월하(9대), 혜암(10대), 법전 대종사(11~12대)가 뒤를 이어 종단의 법을 상징하는 최고어른으로 역할을 해 왔다. 새롭게 종정으로 추대된 진제 대종사는 1953년 석우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 1958년 혜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으며 2004년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품서됐다. 1967년에는 '일면불 월면불(日面佛 月面佛)' 화두를 타파해 향곡스님으로부터 법을 인가 받아, 근현대 한국 선불교 중흥조인 경허스님, 혜월스님, 운봉스님, 향곡스님으로 전해 내려오는 법맥을 이었다. 1971년 부산 해운대에 해운정사를, 1999년 경주에 금천사를 각각 창건해 지역포교와 더불어 선풍을 널리 전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립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조실과 무차선대법회 초청법주, 국제무차선대법회 법주, 백고좌대법회 법주, 간화선 세계평화 대법회 법주 소임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 해운정사 금모선원 조실 소임을 맡아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다.

3. 표준 한글 반야심경 공포

조계종은 지난 10월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단 표준의례 한글 반야심경 봉정법회'를 봉행하고, 전 종도들과 함께 한글반야심경을 독송할 것을 서원했다. 종단 차원에서 표준 한글반야심경을 공포한 것은 불교의례의 한글화 시대를 여는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한글반야심경을 시작으로 종단은 칠정례와 천수경, 불공, 시식, 상장례 등 각종 불교의례의식을 한글화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2012년부터 사미 사미니 수계교육과 기본교육기관에서 한글의례 교육이 진행되면서 한글의례 대중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례 한글화는 한글세대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쉽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포교저변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국 사찰에서 실제적으로 한글의식이 봉행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작업이 주요과제로 꼽힌다.

4. 승려 노후복지시대 개막

출가수행자가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승려노

후복지가제도가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제33대 조계종 집행부 4개년 발전계획 가운데 핵심과제인 승려노후복지제도는 지난 10월부터 65세 이상, 무소임, 무소득 스님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수행연금 지원, 승려노후복지시설 제공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승려복지법'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지난 9월8일 승려노후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승려복지회'와 의료비와 요양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의료급여지급심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또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종단 특별회계로 40억원을 책정했다.

5. 종단 주도 남북 경색국면 타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야기된 남북의 경색 국면을 종단차원에서 적극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은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하고 묘향산 보현사에서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대표단의 평양방문은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진행된 최초의 민간교류로서 의미가 컸다. 조계종은 이에 멈추지 않고 같은 달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차원으로 평양을 또 다시 방문해 심상진 조불련 위원장을 내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공식 초청했다. 일회성 방문이 아닌 장기적인 남북 공존과 상생의 길을 마련한 행보였다.

6. 첫 해외특별교구 출범

한국불교 세계화와 해외포교 활성화의 초석이 될 첫 번째 해외특별교구인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가 지난 10월 출범했다. 제33대 조계종 집행부 4개년 발전계획 가운데 주요과제로 선정된 해외특별교구 출범은 해외포교에 뜻을 둔 개별 스님들의 원력이 아닌 종단 차원의 체계적인 해외포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외특별교구는 지난 4월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첫 성과물로 지난 10월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장으로 석연스님(뉴욕 불광선원 주지)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 출범을 시작으로 미국 서부지역과 유럽 등지를 중심으로 해외특별교구와 대표부를 추가로 설치해 한국불교 세계화와 해외포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7. 국경 넘은 '자비의 손길'

올해 한국불교는 국경을 넘어 해외에까지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조계종은 올 초 동일본을 강타한 대지진 현장에 선발대를 급파하고, 성금 모금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전국 사찰과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보태

모금액은 5억원을 넘어섰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일본 현지 사찰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하고, 조총련계 민족학교인 동북초중급학교 등에 기금을 전달하는 등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50년만의 최악의 홍수로 실의에 빠진 태국에도 발빠르게 구호물품을 전달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10월말 선발대를 보낸데 이어,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4박5일 동안 1억원 상당의 식량과 의료품 등을 현지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1월 초 또 한 번 봉사단 꾸려 파견할 계획이다.

8. 전국비구니회장 첫 경선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명우스님이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경선을 통해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에 선출됐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10월17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신임 전국비구니회장 선출을 위한 제7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날은 전국비구니회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경선인 만큼 선거전부터 교계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선거에는 전국에서 운집한 비구니 스님 1456명이 접수를 마친 가운데 1366명이 투표에 참가하는 등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함께 출마한 비구니회 부회장 운달스님을 제치고 명우스님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선 직후 “화합과 소통을 통해 차근차근 모든 공약을 충실히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명우스님은 11월21일 열린 취임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간 비구니회를 이끌게 된다.

9.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성황

고려대장경 조성 천년을 기념해 제12교구본사 해인사 일대에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지난 9월23일부터 11월6일까지 45일간 개최됐다. ‘천년의 꿈, 살아있는 지혜를 배우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전에는 200만명이 넘는 내외국인이 찾아 대성황을 이뤘다. 이 기간동안 해인사는 해인아트프로젝트를 진행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를 시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가야산 절경으로 꼽히는 홍류동 계곡에 소리길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전시 공연콘텐츠와 체험행사를 통해 ‘국보급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장경축전의 성공은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품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0. 10·27법 개정 목소리 높아져

근대 국가권력이 종교교단에 저지른 초유의 폭거인 10.27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명예회복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만 있을 뿐, 정작 명예회복의 ‘내용’이 빠져있는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

복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기구인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명예회복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법의 실상을 알리고 개정의 의지를 드러냈다. 조계종 총무원 역시 10.27법난 당시 스님 전체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본지도 당시 보안사의 사건 기록 은폐 및 축소 의혹 등을 특종보도하고 독후감 공모전을 여는 등 불자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11. 수그러들지 않는 '종교편향'

올해도 끊임없는 종교편향 사건이 기승을 부렸다. 특히 제56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서 국방부가 찬송가를 연주해 현 정부의 종교편향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앞으로 모든 군 행사에서 찬송가를 연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현충원에서도 같은 곡이 연주돼 다시 한 번 공직자들의 안일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따라 전국 200여 개의 불교 지명이 일반 도로명으로 변경돼 불교계 안팎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더불어 종교편향은 전국 곳곳에서도 일어나 심각성을 더했다. 부산 개운사 등의 불상훼손, 시 예산을 들여 트리를 설치한 밀양시 사태 등으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2. 잇따른 원로 스님들의 입적

지난 6일 영결식을 올린 원로 비구니 세주당 묘엄스님은 명사 법계(대종사격)를 수지한 봉녕사 승가대학장이자 금강율원 율주로 평생 교학 연찬과 후학양성, 도량 재건에 힘써 추도조문이 이어졌다. 도선사 조실 보광당 혜정대종사는 11월12일 서울 도선사에서 입적해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으며 문수사에 주석하며 교도소 포교 및 국제포교사로 매진했었다. 일생을 쉼 없는 정진과 중생교화로 수행자의 표상이 됐던 원로 도천당 도천대종사는 지난 9월28일 금산 대둔산 태고사에서 입적, 화엄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고, 그 다음날 원로의원 정무스님이 안성 석남사에서 원적해 용주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된 영결식에서 불교계 단체들은 잇달아 애도문을 발표했다.

[2] 현대 불교/ 2011 올해의 불교계 10대 뉴스 '지성과 쇄신 불교계 희망 밝아진 한 해'

1. 대장경 천년 맞아 국민 곁으로

2011년은 초초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경상남도와 해인사가 9월 23~11월 6일 개최한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은 불교문화의 저력을 통해 불교 위상을 드높인 불교문화의 저력을 통해 불교 위상을 드높인 성과를 거뒀다. 대장경 축전에 참여한 이들만 220만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1인 1경판 인연 맺기 운동을 통해 모아진 기부금은 우리문화 살리기 운동에 사용돼 의미를 더했다.

2. 정부 전통문화 인식 미흡에 5대 결사

2011년의 새해는 5대 결사 선언을 통한 자성과 쇄신으로 시작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월 26일 담화문을 통해 '조계종 5대 결사'를 선언했다. 정부 여당이 전통 사찰 보수와 방재예산, 템플스테이 예산, 4대강 관련 법안 등을 날치기 처리한 직후다. 조계종은 정부 여당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민족문화수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종정 법전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 전반에서 지지표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진정성과 지속성이 전제돼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조계종은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봉행하는 한편 5대 결사 진행을 위한 대토론회를 매월 진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3. 불교사회단체 결집, 화쟁위 발족

자정과 쇄신을 향한 의지는 화쟁 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졌다. 조계종은 6월 8일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도법 스님을 필두로 성태용 교수(건국대)가 기획위원장, 박경준(동국대), 조성택(고려대) 이찬수(강남대) 교수 등 다양한 교계 안 밖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어 화쟁위를 비롯한 종교평화 위원회,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 사무국을 합쳐 결사추진본부가 탄생한다.

4. 조계종 제10대 종정 진제 스님추대

2011년은 조계종 최고 어른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종정 스님이 8년 만에 새로이 추대된 한해였다. 12월 1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조계종 종정추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3대 종정으로 추대된 동화사 조실 법원당 진제스님은 "종단의 화합 등을 위해 이판사판 양면의 대중들의 공의를 수렴해 조계종 본체인 간화선을 널리 펴는데 매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제 스님은 1998년과 2000년 무차선대법회, 2009년 백고좌대법회를 비롯한 수많은 간화선 법회를 연 간화선 대종장이다.

5. 승려노후복지 시행

출가수행자가 노후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승려노후복지제도가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4월 '승려복지법'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지난 9월 8일 승려노후복지 사업을 총괄하는 '승려복지회'와 의료비, 요양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의료급여지급심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011년 종단 특별회계로 승려노후복지기금 10억 600만원을 책정한데 이어 2012년에도 13억 4000만원이 책정 예정으로 첫 수급자로 묘희의 대원스님이 선정됐다. 승려노후복지제도는 보건의료분야와 수행 연금 분야, 수행 거주 분야로 ㄴ뉘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보건의료분야만 우선적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수행연금분야는 2014년4월 1일 시행되며, 수행거주분야는 각 교구본사별로 승려노후복지시설을 건립해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세계 석학들 한국불교를 배워

2011년은 세계 석학들이 한국의 선수행과 불교문화를 배우고 발전을 위한 담론을 이어간 한해였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개최한 8월 20일~21일 개최한 '제 2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에는 세계적인 불교학자 30여명이 참여해 불교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에는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스님과 피터 그레고리 스미스대 교수, 로버트 버스웰 UCLA교수 등 국내외 학자 29명이 참가해 토론을 벌이고 총 15편의 간화선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참가 학자들은 학술대회에 앞서 백담사에서 닷새 동안 간화선 수행을 실참 했으며 석종사와 봉암사, 동화사를 차례로 방문해 진제 스님 등과 대담을 진행했다. 또 천태종 종조인 상월 원각 조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11월 12~13일 열린 국제학술회의 '미래 세계와 불교'에서는 폴 해리슨 스탠퍼드 대학 교수와 이안해리스 런던 예술대학 교수, 레오나르드 스왈더 템플 대학 교수(미국 필라델피아) 등 세계 석학 15명을 비롯한 국내외 학자 32명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학술대회는 전체 6개 섹션으로 나뉘어 금상대 대강당과 중강당에서 진행됐는데 충남 논산이란 지리적 한계에도 입추에 여지없이 많은 대중이 운집해 불교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7. 문화재 환수, 활발발

2011년 1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실크로드와 둔황' 특별전을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찾는 성황을 이뤘다. 특히 프랑스 국립박물관이 소장 중이던 <왕오천축국전>의 전시는 해외반출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 올린 신호탄이었다. 이는5월 프랑스가 소장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 297권의 반환과 12월 일본이 소장하고 있던 조선왕실의궤 반환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설립 5주년을

맞아 특별전 개최 등 문화재 홍보 행사를 개최해 전통 문화 전승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였다.

8. 10대 비구니 회장 명우 스님

조계종 제 10대 전국 비구니 회장에 명우 스님이 선출됐다. 10월 17일 치러진 신임 전국 비구니 회장 선거는 조계종 사상 첫 직선으로 치러져 교계의 관심을 모았다. 선거 전부터 후보인 명우 스님과 운달 스님은 공약을 제시하며 비구니계 발전에 비전을 제시하며 안팎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첫 직선이 치러진 선거당일 혼잡한 가운데서도 양 후보들이 선거에 승복하고 서로 격려하며 불교역사에 선례를 남겼다. 명우 스님은1366명 가운데 765표를 얻었으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운달 스님을 지지했던 모든 스님들에게도 다가갈 것으로 운달 스님 공약도 참조하겠다.”고 말했다.

9. 큰 스님 연이어 입적, 대종사 품서

조계종 원로인 석남사 회주정무 스님, 도선사 회주 혜정 스님, 비구니계의 큰 별 봉녕사승가대학장 묘엄 스님이 잇달아 입적했다. 큰 스님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는 수 많은 불자들이 함께하며 그 유훈을 잇기를 서원했다. 조계종은 큰 스님들의 집적이 잇다르자 11월 24일 3년 만에 대종사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새로운 대종사는 동국대 불교대학장을 지낸 인환스님과 영주암 회주 정관스님, 전 중앙종회의장 월탄스님, 전총무원 부원장 암도 스님을 비롯해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전 관음사 주지 종하스님, 고운사 조실 근일 스님이다. 한편 폐암 투병 중이던 환경보살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도 5월 15일 별세해 불교계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10. 법륜스님 안철수 멘토로 주목

불교계 외적으로는 법륜 스님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교수의 멘토로 주목받았다. 청춘 콘서트에서는 안철수 박경철 등과 대화 소통의 무대를 선보여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스님은 기존 즉문 즉답으로 청중들의 공감대를 전폭적으로 이끌어냈다. 법륜 스님은 오래전부터 남북평화문제와 국제적인 기아해결, 문맹퇴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약한 인물로 즉문즉설은 3050의 중장년 세 개를 위한 법회형식의 일문일답 무대로 102회 기록을 세웠다. 2002년에 해외구호활동과 대북지원업적 등으로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고 만해상, 청암상 얼마전에는 통일대상을 수상했다.

Ⅱ. 개신교

[1] 교회연합신문/ 2011 반목과 갈등의 한해, 한국교회의 치부 드러낸'한기총'

1. 한기총 사태, 여전히 진행 중

지난 1월 20일 한기총 제22회 총회에서 대표회장 인준거부 문제로 총회가 파행되며 시작 된 한기총 사태는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봉합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금권선거 정황과 이를 둘러싼 여러 비리가 폭로되며 상황은 이전투구 양상으로 진행돼 왔다. 특히 대표 회장 길자연 목사가 3월 법원으로부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당하자 사태는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이후 법원에서 김용호변호사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파견해 한기총 사태를 수습하게 했고 그 결과 7월 7일 특별총회를 열어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0월 28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특별총회에서 개정된 부분을 대부분 다시 개정하며 이를 둘러싸고 예장통합(총회장 박위근 목사)과 예장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을 주축으로 기독교계의 세력이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을 띄게됐다. 특히 이 과정 중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희구목사, 이하 한장총)에 불똥이 튀어 한장총이 다소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한기총은 오는 27일 실행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한 상태이며 이를 둘러싸고 또다시 대립 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 기독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예장개혁, 전도총회 영입

예장개혁총회(총회장 조경삼목사)는 연초 예장전도총회 영입문제로 내홍을 겪다 결국 5월 21일 일산 킨텍스에서 전도총회 영입예배를 드렸다. 이 과정에서 개혁총회는 분열의 아픔을 겪었고 그 결과 개혁총회는 두 개로 쪼개졌다. 전도총회 영입을 반대하는 장세일목사측은'이단 영입 반대'를 이유로 들었고 영입 찬성파인 조경삼 목사 측은 전도총회에서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교단을 해체한 후 개혁교단에 들어와 지도를 받겠다고 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9월에 각각 총회를 개최하며 공식적으로 분열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서로 사회법에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 기독교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개혁 측의 전도총회 영입문제는 단지 교단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한기총의 회원자격 문제를 놓고도 여러 말들이 나왔다. 결국 한기총에서는 질서 확립 대책 위원회에 맡겨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중이다.

3. 한장총, 한교단 다체제 로드맵 제안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장총)가 추진해온 한 교단 다 체제의 로드맵이 확정됐다. 한교단다체제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제안은 5단계로서 다

음과 같다.△1단계 연합기도회를 열어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의 잘못된 것을 통회 자복하고 하나 될 것을 기도한다. △2단계 각 교단의 신앙고백서 중 공동으로 갖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교단다체제 한국장로교회 신앙 고백서로 확인한다. △3단계 웨스트민스터예배모범과 정치는 한 교단 다 체제의 예배 모범과 정치로 추진위가 확인한다. 단, 시대적 감각에 맞도록 각 교단의 특성에 맞도록 보완할 수 있다. △4단계 각 교단이 파송한 위원들로 구성된 일교단 다체제 헌법 초안 작성 위원회를 조직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통합모델을 연구 참고한다. △5단계 2012년 9월 총회 시 각 교단 총회를 9월 셋째주간으로 정하고 한 도시에서 갖도록 조율하고 개회예배(성찬식)를 함께 한 후 한교단다체제를 선포한다.

4. WCC 제10차 부산총회 한국 측 준비 위원회 공식 출범

오는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위한 한국 측 준비위원회가 지난 10월 6일 드디어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준비위 조직이 지지부진 미뤄지며, 교계의 우려가 극에 달한 시점에, 이번 준비위의 출범은 성공적인 총회개최를 위한 청신호였다. 특히 이미 WCC부산총회의 세부적인 날짜(10월28일~11월9일)까지 확정된 시점이기에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늦어졌다면 자칫 총회 준비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준비위 출범이 그리 순탄치 만은 않았다. 준비위의 내셔널 코디네이터 직을 둘러싼 회원교단(예장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 간의 내홍이 깊어지며, 급기야 지난 교회협 실행위에서는 예장통합과 기장이 정면, 충돌 하는 사태까지 빚어 졌다. 기장의 배태진 총무는 예장통합의 조성기사무총장에 대해 모든 중요 직책을 독점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조사무 총장의'한줌밖에 되지 않는 NCC'란 발언까지 들먹여, 이번 한국준비위를 둘러싼 회원교단간의 대립이 매우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5. (재)한국찬송가공회, 합법성 논란…저작권료 분쟁 최종 패소

(재)한국찬송가공회(공동대표 이광선목사, 서정배목사)를 둘러싼 잡음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한해였다. 더구나 올해는 교회협까지 이 논란에 가세하며, 더욱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교회협은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며, (재)한국찬송가공회의 불법성을 비난했고, 급기야 공회의 재단법인을 승인한 충남도청에 취소 요청 공문을 띄우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런 교회협의 활동에 반대해 온 예장 통합 측과 공회측은 이에 즉각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대립의 칼날을 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협에서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많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최근 공회측이 황철익 외 4인이 제소한 저작권료 청구에 관한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이번 사건은 일부 찬송가의 원작곡가인 황철익 외 4인이 저작권료 징수와 배분을 담당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ICA)에 찬송가 12곡에 대한 저작권료 1억2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발생한 것으로, 원작곡가들로부터 해당 곡들의 저작권을 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공회 측과 마찰을 빚었다.

6. 기독교정당 난립과 통합

올해는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를 겨냥한 기독교 정당이 속속 출현했다. 이미 두 차례 총선에 도전했던 기존의 기독 사랑 실천당(대표 민승목사)에 이어 한국기독당(대표 정훈목사)과 기독자유민주당(대표 김충립박사)이 창립됐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우후죽순 생겨나는 기독교 정당에 대해 교계일부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다.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교계 진보 권과 미래 목회 포럼 등은 기독교정당 난립에 매우 불편한 기색을 표했고, 급기야 9월과 10월 기독교정당에 대한 찬반토론이 잇따라 열렸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와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이 각각 주최한 두 토론회에서 찬성 측 대표로 모두 기독자유민주당의 전광훈목사와 김충립 대표가 나와 기독교 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반대 측 으로는 이만열 교수, 손봉호 교수 등이 나섰다. 한편, 최근에는 기독사랑실천당과 기독자유민주당의 통합감사예배를 드리며,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들어갔다. 세개로 갈려진 기독교 정당을 보며, 기독교의 표가 갈라질 것을 우려했던 교계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으로 이로써 내년에는 기독교정당최초의 국회의원 배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7. 연세대 이사회 정관 개정 통해 기독교 정체성 상실

언더우드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어 우리나라 사학 최고의 명문으로 자리 잡은 연세대 이사회(이사장 방우영)에서 교계 이사진의 수를 6인에서 2인으로 대폭 수정하는 정관개정을 통과시키며 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전까지의 연세대의 총 이사진은 12명으로 예장통합 1인, 기감 1인, 기장 1인, 성공회1인, 동문회 2인, 총장 1인, 사회유지 5인으로 구성됐었다. 사회유지는 연세대학교 출신으로 3인, 협력교단의 교계인사 2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하지만 사학 법 변경으로 인해 교과 부 파송의 개방이사 3인을 포함시켜야 됨에 따라 기존 이사진 구성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에 이사회는 기습적인 정관변경을 통해 기존 4개 교단에서 1인씩 파송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교계인사 2인만 유지시킴으로 연세대에 대한 기독교의 권리를 차단했다. 이에 교회협을 필두로, 연세대 신과대학 등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며 연세대의 기독교 정체성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8.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법정구속

2009년 말 제자교회 심규창장로를 비롯한 일부 장로들이 정삼지목사와, 홍경표집사, 서윤원 집사를 교회 재정 32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된 제자교회 사태가 1심에서 정삼지 목사가 법정 구속 되면서 일단락됐다. 선고 이전에 정목사는 검찰로부 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 받은 상태여서 많은 이들이 실형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긴 했지만 막상

재판에서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교계의 큰 충격이었다. 현재 정삼지목사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의 뜻을 밝히고 끝까지 투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규창 장로를 중심으로 한 정삼지목사 반대파들은 정목사가 구속되자 임시당회를 열고 교회의 주요 직책을 장악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교회 비대위측과 마찰을 빚었다. 아울러 반대파 장로들이 노회 재심 재판국을 통해 면직, 제명, 출교 당한 것을 회복한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반대파 장로들이 적법하게 임시당회를 연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제자교회 사태는 혼란을 더해가고 있는 중이다.

9. 본보 20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 장로교단'300개'명단 발표

장로교단이 합동과 합동의 분열 이후, 수많은 분열을 반복했지만, 그동안 교계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 최근 본보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 장로교단의 명단이 발표되며 한국 교회를 놀라게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한국장로교의 숫자는 무려 300여개에 이른다. 이 같은 숫자는 100년여의 기간 동안 기적과도 성장을 펼쳤던 한국교회의 성공 비결이 다름 아닌 분열을 통한 성장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이 성장 뒤에는 한국교회 특유의 기복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복주의를 극복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1월 15일 서울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장로교회 하나 될 수 없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이성구목사(구포제일교회)가"장로교회의 역사와 정체", 김남식 목사(한국 장로 교사 학회 회장)가"한국장로교회 왜 분열하였는가?", 이종윤 목사(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가"한국장로교회 하나 될 수 있나?' "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10. 한기총, 최삼경 목사 이단 규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목사)는 예장통합 이단대책위원장 최삼경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에서 연구한 결과 최삼경 목사의 신학에서 심각한 이단성이 발견된 것이다. 질서위가 이단성 요소로 지적한 부분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 잉태론이었다. 질서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최 목사는 삼위 하나님을 각각의 본질을 가진'세 영들의 하나님', 곧 세 분 하나님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는 본질의 단일성을 부정하는 삼신론 사상이다"고 밝혔다. 또한"마리아의 월경(피)이 아니면 예수가 태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주장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 목사를 가리켜 교회사에 등장한 이단들 중 가장 악한 이단이라고 규정했다. 질서위의 최삼경 목사에 대한 보고서는 한기총 임원회에서 받아들여졌고 결국 최 목사는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2] 한국교회언론회/ 2011년 기독교계 10대 뉴스

1. 한국교회 성경번역 100주년, 선교사 파송도 활발

한국교회가 선교사 파송 2만 명 시대를 넘어 3만 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는데, 2011년 현재 170여 개국에 2만 2천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세계 선교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1천명 이상씩의 선교사 증가는 멈추지 않고 있다. 선교의 방향도 과거의 일반 선교에서 의료, 교육, 복지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선교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피선교국에서의 주민들에 대한 실제적 도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는 2,479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1911년 '성경전서'가 번역된 이후 올해로 성경 번역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한국교회는 성경 번역을 통한 한글보급운동에도 크게 기여하여, 1997년 유네스코가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할 정도의, 한글을 사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4,218만권 이상의 성경을 보급하였고, 해외에도 올 한 해 124개국에 216개 언어로 된 성경 545만부를 제작하여 수출하였다. 현재 한국은 1,500개 언어로 성경을 제작할 수 있는 파일을 가지고 있다.

2. 한국 교계, 사회봉사 종교계에서 여전히 가장 높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사회봉사가 두드러지고 있다. 구세군은 올 해 자선냄비를 통해 예상보다 많은 47억 원을 모금하였고, 월드비전이 지난 해 기준 1,536억을 국내, 해외, 북한 등에 지원을 해 왔고, 국제기아대책기구도 올 해 1,431여억 원의 모금을 통해 국내 구제와 복지, 해외 지원을 해 왔다. 그리고 굿네이버스가 지난 해 614여억 원을 모금하여 지원하였고, 굿피플도 지난 해 85억여 원을 모금하여 국내 및 해외사업을 지원하였다. 현재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설립된 NGO 단체는, 봉사단체로 한국해비타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YWCA전국연맹, 다일복지재단 등 24개가 있고, 구호 단체로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민족복지재단, 월드비전 등 14개가 있다. 또 장애인 단체로는 밀알복지재단 등 3개가 있다. 그 외에도 노동자 관계 사역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안산이주민센터 등 5개가 있다. 또 평화 단체 10개, 청소년 단체 4개, 환경 단체 2개, 인권 단체 2개, 농촌계몽 2개, 생명운동 1개, 기독기민운동 14개 등이 있다. 지난 해 주요 구호 단체 220개의 비영리 민간단체(NPO)에서 모금한 금액은 총 1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중 기독교 관련 단체가 76개로 전체의 34.5%를 차지하여, 천주교 3.6%, 불교 2.7%, 원불교 1.4%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구호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WCC(세계교회협의회), WEA(세계복음연맹)총회 한국 개최

한국에서는 10월 6일 WCC 부산총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2013년 WCC 부산총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8일 사이에 열리게 된다. 한편 한국교회 내에서는 과거의 WCC 행적이나 신학적 문제로, 총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WEA도 2014년 10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하였다. WEA는 전 세계 128개국 복음주의 교회들과 100여개의 국제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WEA는 1846년 설립된 WEF(World Evangelical Fellowship)에서 시작되었다. 2013년과 2014년에 연이어 한국에서 개최될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들의 한국 총회는 세계 교회 속에 한국교회의 위상을 새롭게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본다.

4.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모녀 구출운동에 한국교회가 앞장

통영의 딸로 통하는 신숙자 씨는 1960년대 파독 간호사로 있던 중 유학생 오길남 씨와 결혼한다. 그러던 중 1985년 윤이상 씨의 월북 권유로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월북을 권유받던 때와 약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길남 씨는 1986년 유학생 포섭 지령을 받고 독일로 가던 중 탈북하였으나 신숙자 씨와 그의 두 딸 혜원과 규원은 북한의 통제구역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다가 근래에 탈북자들에 의해 그들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고, 올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한 교회에 의하여 신숙자 모녀 구하기 서명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그 교회는 통영의 현대교회(담임 방수열 목사)로 5월 25일부터 서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4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를 통하여 유엔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국가 인권위원회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5. 연세대 이사회, 의도적으로 기독교단 파송 이사를 줄임

연세대는 지난 1915년 3월 미국 북 장로교, 미국 남·북 감리교, 캐나다 장로교의 협력으로 출발한 최초의 기독교 학교이다. 그에 따라 연세대는 지난 1957년부터 4개 교단(예장 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에서 파송하는 이사를 받아주던 제도를, 지난 10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기독교계 이사는 2인으로 한다'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 사회유지 이사 가운데 협력교단 추천 기독교계 인사 2인도 빼버렸다. 이에 대해 연세대 신학대학 동문회는 11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사회가 건학 정신을 말살하고, 방우영 이사장이 연세대를 사유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12월 12일 '연세대학교이사파송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 대학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인 피터 A 언더우드(한국명 원한석)도 11월21일 연세대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연세대 재단법인이 대학과 병원 설립정신을 온전히 지켜 나가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이사 추천권을 유지할 것을 촉구 한다’고 하였다.

6. 이슬람 채권인 소위 ‘수쿠크법’ 한국교회의 입장

지난 2월 24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한국교회협의회(NCCK)의 신임회장인 이영훈 목사의 취임감사예배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축사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인 조용기 목사는 ‘정부가 이슬람채권의 입법화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 시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운동을 벌일 것’이란 발언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던 “이슬람채권법”은 입법되지 못했다. 특히 야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 이유는 수쿠크법이 무분별한 외국자본 유치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고, 특정 종교에게 과세특례를 준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때문이다.

7.교회와 관련된 두 영화 <도가니>와 <완득이>

<완득이>는 김려령 작가의 소설을 이 한 감독이 만든 영화이다. 국내체류 외국인 130만 명 시대를 맞아, 이 영화 속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돌보는 교회의 역할과 활동이 묻어난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 불신하던 교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 한국교회는 1998년부터 외국인이주노동자운동협의회를 만들어 외국인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성사시켰고, 2004년 개원한 ‘외국인 노동자 전용병원’에서는 25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있다. 그밖에도 네트워크를 통한 이주 외국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 영화는 지난 10월 20일 개봉되어, 12월 26일 현재 529만 3천 327명의 관객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도가니>는 광주의 장애우 학교인 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벌어진 장애우에 대한 성폭행과 폭행 사건을 다룬 것으로, 작가 공지영 씨의 동명(同名)소설을 황동혁 감독이 영화화 한 것이다. 이 영화 장면 속에는 기독교인의 교회 직분명과 십자가의 모습이 자주 등장함으로, 기독교에 대한 실망스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영화는 지난 9월 22일 개봉하여 12월 12일 기준으로 관객 470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사건이 한참 지난 시점인 2011년 11월 18일 재수사를 통해, 관련자 14명이 형사 입건되는 등 사법조치가 취해졌다. 또 이 영화로 인하여 9월 2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소위 ‘도가니법’이 통과되었는데,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때, 7년, 10년의 유기징역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8.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불교계의 종교 갈등 조장 우려

서울시 의회는 지난 12월 19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개의 독소 조항도 있다. 이를테면,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임신과 출산,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성적(性的) 자유를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제16조 <의사 표현의 자유>에서는 '정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학생들에게 무분별한 정치·이념화에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 또 제15조의 <양심·종교의 자유>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기독교 설립 목적의 학교들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상실이 올 것은 뻔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서울에서의 기독교 학교는 96개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위해서 불교계가 기독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명운동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불교계 언론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종립학교의 대부분을 기독교가 차지하기 때문인데, 이런 민감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교계가 주민발의가 되도록 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상관없이 종교간 갈등의 문제를 심화시킨 셈이다.

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파행, 한국교회 이미지 추락시켜

한기총의 파행은 지난 2월 9일 직전 대표회장인 이광선 목사가 본인이 시무하는 교회로 일반기자들을 초치해 한기총의 '금권선거' 문제와 '개혁운동'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현 대표가 소속된 교단에서의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자리에서의 금권개입설 폭로까지 겹쳐 한기총의 돈 선거 문제는 한국교회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월 28일 법원은 길자연 현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기에 이르렀고, 직무대행인 김용호 변호사가 소집한 7월 7일 특별총회에서는 총대들이 길자연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다시 인준하였다. 대표회장에 복귀한 길자연 목사는 10월 28일 실행위를 개최하고 정관을 대폭 수정한다. 그러나 한기총 문제에 여러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한기총의 문제는 대형 교단들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에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욕 때문에 잘 풀리지 않고 있다.

10. 한국교회언론회 '기독교 정당 과연 필요한가?' 포럼 개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 둔 시점에서, 기독교 정당의 출현과 이 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한국교회언론회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지난 9월 14일 "기독교 정당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기독교 정당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서의 기독교 정당은 지난 1945년 9월 신의주에서 기독교사회민주당이 설립되었던 것이 그 시작이다.

그러나 근래에 기독교 정당은 지난 2003년 기독교 지도자들의 정치권복음화를 위한 필요 주창에 의하여 한국기민당이 설립되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1.07%를 얻는데 그쳤다. 이에 굴하지 않고 2008년에는 기독사랑실천당이 44만여 표를 얻었으나 원내 진출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기독당이 내년을 겨냥하여 지난 12월 6일 기독사랑실천당과 자유기독민주당이 합당하기에 이르렀다.

Ⅲ. 가톨릭

[1] 가톨릭 신문/2011년 세계 10대 뉴스

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시복

'행동하는 교황'이자 '평화의 사도'로서 전 세계인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시복됐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5월 1일 바티칸 성베드로광장에서 87개국 300만여 명의 군중이 함께한 가운데 시복식을 열고, 요한 바오로 2세를 복자로 선포했다. 이번 시복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한지 6년 만으로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바티칸은 올해 5월부터 1년 동안을 '축제의 해'로 정하고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을 경축할 계획이다.

2. 제26차 세계청년대회 폐막

전 세계 청년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궜던 제26차 스페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WYD)가 8월 11~21일 성황리에 열렸다. 전 세계 193개국 100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했던 이번 대회는 11~15일 교구의 날, 16~21일 본 대회의 숨가쁜 여정을 이어나갔다. 사상 최대 규모의 참석인원, 청년들의 참가의식 또한 높았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회는 21일 쿠아트로 비엔토스 비행장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 주례로 거행된 폐막미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차기 대회는 2013년 브라질에서 열린다.

3. 교황, 아프리카 베냉 방문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11월 18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아프리카 베냉을 방문, 영적?윤리적 붕괴 앞에서 아프리카의 오랜 가치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교황은 방문 첫날인 18일 환영 자리에서 "베냉 그리스도교 전래 150주년을 기념하고 아프리카의 미래에 관한 문서를 발표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히고, 아프리카인들에게 현대의 긍정적 측면들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했다. 이튿날에는 주교대의원회의 아프

리카 특별총회 후속 교황 권고 「아프리카의 헌신」에 서명, 아프리카 신자들에게 '화해와 정의와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을 촉구했다.

4. 교황, 모국 독일 방문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9월 22~25일 모국인 독일을 방문했다. 교황은 독일의회에서의 연설을 비롯해 유다교 지도자들과 만나고, 성모성당이 있는 에첼스바흐와 마틴 루터가 사제품을 받고 생활했던 에르푸르트 등을 방문했다. 또한 동방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 등 4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방문에서 교황이 시종일관 세계를 향해 보낸 메시지의 요점은 '신이 없는 인간 사회와 종교적 무관심이 얼마나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위협하고 그 사회 안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새로운 종류의 위험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가'라는 점이었다.

5. 보편교회, 블로그·SNS 등으로 소통 강화

교황청은 5월 2일 전 세계 가톨릭 블로거 150명을 초청, 현대 세계 안에서 뉴미디어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종교와 신앙 등에 대한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 특히 이날 온라인 콘텐츠가 신앙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그 진실성이 어떻게 평가될 것이며, 교회가 어떤 식으로든 '인가'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교황청은 교황청의 모든 뉴스 미디어들의 콘텐츠를 망라해 제공하는 새로운 뉴스 사이트(News.va)를 개설했다고 6월 27일 발표했다.

6. 일본 재난에 세계교회 한마음

일본 대지진 이후 전 세계 교회는 지진과 쓰나미로 고통 받고 있는 일본을 위해 사랑의 연대를 호소했다. 미국 주교회의 의장 티모시 돌란 대주교와 호주 주교회의 의장 필립 윌슨 대주교는 일본 주교회의 의장 이케나가 준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재난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영국과 웨일즈 주교회의도 격려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아일랜드교회는 주교회의에서 일본 국민들을 위한 기도문을 일선 본당에 배포하고 신자들이 기도를 바쳐줄 것을 호소했다. 프랑스 루르드 성지의 본당에서도 일본 국민들을 위한 기도 운동을 전개했다.

7. 세계 평화 위한 종교 지도자 모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10월 27일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300여 명의 타종교 지도자들과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묵상과 대화와 기도의 날을 가졌다. 이날 교황은 연설을 통해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하는 것과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 하느님과 객관적 도덕 기준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서 비롯한 '인

간성 상실'로 폭력이 증대되는 것을 비난했다. 이 자리에는 정교회, 성공회 대표를 비롯해 세계교회협의회 대표, 이스라엘 최고 랍비협의회 대표, 힌두교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함께했다.

8. 라틴아메리카 독립 200주년 기념미사

교황청 라틴아메리카위원회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주례로 12월 12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장엄 미사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했다. 이날은 라틴아메리카의 수호성인 과달루페의 성모 축일로서 의미를 더 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교회들 특히 라틴아메리카주교회의(CELAM)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주교회의들과 개별 주교들은 수많은 문서들과 선언들을 발표했으며, 전례와 학술 행사, 출판 분야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념하고 있다.

9. '앗 리미나' 교황 면담 방식에 변화

교회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지는 지역교회 주교들의 사도좌 정기방문인 '앗 리미나' 의 전통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앗 리미나'의 밀린 일정을 줄여 올해 84세인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과중한 스케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바티칸은 주교들이 사도좌를 방문할 때 이뤄졌던 교황과 주교들 간의 일대일 개별 면담 대부분을 중단했다. 대신 교황은 7~10명의 주교로 구성된 그룹별로 자유롭게 모임을 열고 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앗 리미나'를 통해 개별적이든 그룹을 통해서든 거의 300명의 주교를 만났다.

10. 전 세계 사제 수 10년간 증가 추세

전 세계 사제 수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고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지가 교황청 통계연감을 인용해 2월 10일 발표했다. 교황청은 또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두드러졌던 사제 수의 '상대적 과다(지역 신자 수보다 사제 수가 많은 현상)'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황청은 통계연감 수치를 바탕으로, 1999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는 전 세계 신자의 절반에 가까운 42.4%가 살고 있었지만, 이 지역의 사제 수는 전 세계 사제의 15%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사제 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2] 가톨릭 신문/2011년 한국교회 10대뉴스

1. 대구대교구 설정 100주년 경축대회 성료

올해로 교구 설정 100주년을 맞이한 대구대교구는 5월 7~15일 경축대회를 열고 100년 은총에 대한 감사, 실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를 주제로 마련된 경축대회는 생명 사랑 나눔 대 축제, 전시회, 청년대회, 초청강연회, 자매·협력교구 행사, 성경암송발표대회, 청소년행사 등으로 꾸며졌으며 15일 교구민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감사미사를 봉헌, '새 시대 새 복음화'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100주년 3대 기념사업인 제2차 교구 시노드와 기념대성당 건립, 교구 100년사 편찬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2. 광주 옥현진 주교·수원 이성효 주교 서품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월 7일 수원교구 이성효(리노) 신부, 5월 12일 광주대교구 옥현진(시몬) 신부를 보좌주교로 각각 임명했다. 이로써 2012년 교구 설정 75주년을 앞둔 광주대교구와 2013년 교구 설정 50주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수원교구에 역동적인 복음화 불씨가 댕겨졌다. 이성효 주교는 3월 25일 주교 서품미사를 봉헌하며 사도들의 후계자로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으며, 옥현진 주교도 7월 6일 서품식을 통해 새 복음화 역사를 쓸 것을 다짐했다.

3. 주교회의 성서위, 「주석 성경」 발간

주교회의 성서위원회는 '성경'에 대한 입문과 본문에 대한 각주 및 참고 자료 등을 수록한 「주석 성경」을 펴냈다. 이로써 한국교회가 2005년 독자적으로 완역해 선보인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 열렸으며, 일선 사목자들과 신학생들은 물론 신자들과 성경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성경 말씀을 더욱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알아듣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주석 성경」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 지리 등도 폭넓게 해설하고 우리말 표기원칙과 관용적 표현 등에도 일관성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4.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봉헌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6월 17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전국 규모의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봉헌하고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8년 만에 재개된 이날 미사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주제대로 남북이 진정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신자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 했다. 전국에서 모인 2만여 명의 사제·수도자·평신도들로 성황을 이룬 가운데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주례로 춘천교구장 김운회 주교, 의정부교구장 이기헌 주교 등이 공동 집전했다.

5.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 … 사회교리주간 제정

주교회의는 10월 열린 2011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정의평화위원회가 제출한 '사회교리주간' 제정에 대한 요청을 검토, 대림 제2주간을 '사회교리주간'으로 제정하고 올해부터 실시했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그간 교회가 '새로운 사태'들을 복음적 시각으로 성찰하고, 이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실천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신자들에게 '사회교리' 교육을 통해 신앙 균형을 맞추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펴왔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교회는 사회교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실천 확대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재)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설립

한국교회 국제개발협력·대북지원 전담 재단법인이 설립됐다. (재)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한국교회의 전문적 해외원조 기구가 공식 설립됐음을 1월 18일 선언했다. 이사장에는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안명옥 주교, 대북사업 본부장으로 한국 메리놀 외방전교회 지부장 함제도 신부가 영입됐다. (재)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그동안 한국카리타스가 전개해온 긴급구호사업, 개발협력사업, 대북지원 사업 등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전담하게 되며, 특히 현재 난관에 봉착해있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새 물꼬를 트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7.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서울대교구, 새 생명 프로젝트 선포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운동본부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새 생명 프로젝트'가 2월 7일 선포식을 열고 본격 추진됐다. '새 생명 프로젝트'는 교회 내 시설 및 전문 인력 네트워크를 활용, 청소년 조기 생명교육과 위기의 미혼임신 여성들에게 보다 안전한 출산 환경을 지원하는 생명수호운동의 하나다. 생명운동본부와 생명위원회는 프로젝트 실천을 위한 첫 단계로 전국 각 교구와 본당, 학교, 병원, 생명운동단체 및 평신도단체, 미혼모 시설, 교회 내 관련 시설이 연대한 새 생명 프로젝트 협의회와 프로젝트 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8.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움직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교구는 해군기지 건설현장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해안에서 '생명·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는 등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도 9월 하반기 정기회의를 통해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으며,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와 정평위는 성명을 발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생명과 평화의 가치 훼손에 대해 우려를 표명

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도 전국집중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9. 한국평협, '125위 시복시성 운동' 전개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열망하는 한국 평신도들의 염원이 적극적인 기도 운동을 통해 뜨겁게 표출되고 있다. 한국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는 9월 4일 대전교구 솔뫼성지에서 125위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를 개최, '하느님의 종' 시복시성에 대한 전국 신자들의 뜻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한편 다짐문 발표를 통해 기도운동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아울러 한국평협은 11월 3~7일 전국 성지순례를 마련,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 운동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갔으며, 교황청 시성성 방문 계획도 세웠다.

10. 명동성당 종합계획 1단계 공사 첫 삽

한국교회의 구심점, 명동성당이 새 단장의 첫 발을 내디뎠다. 서울대교구는 9월 16일 기공식을 마련함에 따라 30여 년간 숙고, 검토해오던 '명동성당 종합계획'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다.명동성당 종합계획은 2029년까지 4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는 명동성당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성당 보존과 열린 광장 조성, 새 교구청사 건립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1단계 공사가 진행되면 현재의 성당 차량 진입로 등을 모두 녹지화하고 광장을 조성하게 되며, 새 교구청사가 세워지면 각종 문화·편의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Ⅲ. 유교/ 원불교

[1] 유교 신문/ 2011년도 10대 뉴스

1. 석전 악무 상시공연

지난 10월 2일부터 12월 5일 까지 매주 월요일 명륜당 경내에서 석전악무 상시공연을 실시했다. 의례단 악단, 일무단이 참석하여 석전과 악무의 원형보존과 계승, 그리고 유교문화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통한 관광 상품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유교문화콘텐츠 발굴에 노력하여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실시되었다.

2. 유교신문명예기자 연수 및 이사회

제 4기 명예기자 연수가 지난 6월 21일 개최되어 우수 기자 표창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4기 명예기자는 향교와 지부의 공동추천을 받아 임명 되었는데 2013년 6월까지 유교 문화를 홍보하고 지역의 유교관련 행사 등을 취재하여 보도하게 된다. 지난 11월 28일 유교 신문사가 법인전환 후 첫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 설립을 보고하고 발행 체제를 격주에서 순간으로 변경, 문화사업팀 가동으로 보급 활로 개척 등 현안 문제 및 계획(안)을 설명했다.

3. 서울향교재단 부설 양천향교 연수원 개원

서울향교재단은 옛 영흥중학교(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소재)를 현대식 시설로 단장하여 지난 9월 2일 양천향교 연수원 개원식을 거행했다. 양천향교 연수원은 지방공교육을 담당한 향교 본원의 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4. 성균관 시범향교 선정

울산향교 청주향교 순천향교 강릉향교 진주향교가 금년도 시범향교로 선정되어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선정된 향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경전 및 고전강좌 운영, 문화교실 운영, 성년례 및 전통혼례, 인성예절교육 상설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5. 유교방송개국 추진

유교방송이 지난1월31일 개국 인가를 받아 개국 준비위원을 선임하여 주식공모에 박차를 가했다. 개국준비위원은 전국 순방 설명회, 향교재단이사장 회의 및 전국 전교회의, 유도회 시도본부 및 지부회장 회의에서 유교 방송 설립취지와 주식공모 등을 설명하여 적극적인참여를 당부했다.

6.최근덕 성균관장 추대 및 성균관 이사장 선임

최근덕 성균관장이 지난 2월 18일 성균관장 추대위원회의에서 제 29대 관장으로 추대되어 3월 31일 성균관장으로 취임했다. 최 관장은 취임사에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재단의 정상화, 유교방송의 개국과 순항, 유림회관의 신축, 천안유림연수원 완공, 성균관 향교의 발전과 지원의 법제화를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천운이 다시 돌아오고 있기에 사문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마음과 힘을 합해 가로막고 있는 난제를 극복하자고 역설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 제 241차 성균관 이사회에서 13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아울러 중앙(11인) 및 지방(7인)

이사와 감사(2인)를 선임했다.

7. 7대 종단 대표 방북

지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종교인 평화회의(KCRP)는 평양에서 북한 최고위층을 면담했다. 이번 방북은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KCP)에서 7대 종단 대표를 초대함으로써 이뤄졌다. 최관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백두산에서 통일 기원의식을 거행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북통일을 이룩하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8. 정승근 여성유도회중앙회장 취임

지난 6월 1일 성균관 여성 유도회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정승근 회장이 취임했다. 정회장은 취임사에서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으며, 미풍양속이 사회와 가정에 뿌리 내릴 수 잇도록 회원 모두 동인협공(同寅協恭)하자고 당부했다.

9. 鄕校와 書院 活性化 模索

지난 2월 22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社)한국서원연합회 주관으로 서원활성화를 위한 서원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지난 6월 3일 과천과학관에서 과천향교와 경기문화재단의 공동 주관으로 향교와 서원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이들 회의에서 유교문화 콘텐츠를 개발과 향교와 서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향교와 서원은 지방교육의 큰 축으로서 지역민의 삶과 연결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문화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0. 유도회총본부 제 6회 대한민국 유림 서예 대전

지난 10월 5일 명륜당 경내에서 제 6회 대한민국 유림서예대전이 개최되었다. 이날 최우수상(1인)와 우수상(6인)을 시상했으며 초대작가 인증서 수여가 있었다.

[2] 원불교 신문/ 2011 10대 뉴스

1. 경산종법사 미주순방(9월15~10월26일)

원기96년은 원불교100년기념성업을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교단적 활동이 전개됐다.

이를 위해 경산종법사는 해외 교화활성화를 위해 42일간의 미주순방 길에 나섰다. 경산종법사는 미주총부법인 원다르마센터 봉불식 및 미주 동서부 교당 순방을 통해 재가 출가교도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 기간중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빌 밴들리 세계종교평화회의 사무총장, 종교지도자, 불교지도자들과 면담하며 세계평화 증진을 위한 지도자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 원광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9월5일)

원광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포함되는 역풍을 맞게 됐다. 이에 원광대학교는 전체 교직원 비상총회를 열고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 마음인문학연구소 개소(4월20일)

원불교사상연구원 산하 마음인문학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향후 10년간 약75억원의 연구 기금을 지원받는 쾌거를 이뤘다.

4. 상산 박장식 대원정사 열반(5월4일)

대종사의 직계제자로 초기 교단 형성의 산 증인인 상산 박장식 종사의 열반은 재가 출가교도들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다. 수위단회에서 상산 종사의 법위를 대각여래위로 추존했다.

5. 원광디지털대 원불교학과 개설(10월28일)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가 개설돼 재가 교도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불교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6. 대구원음방송 개국(11월20일)

대구원음방송이 개국식을 갖고 대구경북교화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20일 대구경북교구청 대각전에서 열린 개국식에서 원음의 소리로 대구를 비롯한 경북지역 일원에 원불교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효율적인 방송교화와 대중교화를 펼쳐갈 것을 다짐했다.

7. 수위단회 제도개선위원회 출범(12월2일)

교단 혁신의 첫걸음으로 꾸준히 논의됐던 수위단회의 개선을 위해 수위단회 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했다.

8. 2만 단장 훈련 수료식(12월18일)

9. 2011년 청소년희망캠프(7월23~25일)

10. 부산교구 하단성적지 봉고(5월29일)

부산교구가 영남지역 최초의 교화발상지인 하단성적지 도보순례에 이어 복원 봉고식을 거행했다. 5월29일 오후 2시부터 출가 재가교도들은 용두산공원을 출발해 하단성적지까지 8km를 순례한후 오후 5시에는 '하단성적지 복원 봉고식'을 통해 80년 전 대종사와 선진들의 발자취와 창립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초기원형 건물인 갈대지붕 초가 및 우물 복원, 역사관 건립 봉고식에 주안점을 뒀다. *